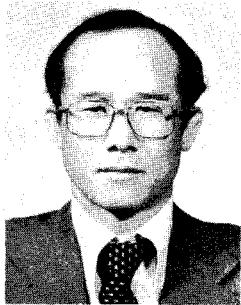


양계산물 소비 누가 걱정할 일인가?



신정재

(주)과학사료 대표

얼마전 친구의 한 부인은 계돈을 타자마자 남편을 설득하여 소형자동차 한 대를 계약했다.

자동차 굴리는 비용도 계산해 보니 남편 출퇴근하고 여기저기 불일보러 다니는 교통비면 운영비도 충분할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월부금도 3년(36개월) 할부로 매월 몇만원이 되고 해서 부부는 그런대로 합의가된 것이다. 그래서 빨간색의 프라이드 한 대를 꺼내서 우선 친구 집으로 선을 뵈러(자랑도 할

겸) 떠났다. 차번호도 받기 전에 나무로된 가넘버를 붙이고 거기다 보험은 들기도 전이었던 것은 물론이었다.

호사다마라고 가는길에 신호등에 멧게 되었다. 그러나 자기차를 처음 운전한다는 흥분이 심했던지 앞차나 다른차가 뵈지를 았았던지 다른 생각을 했던지 앞에 신호를 기다리는 차를 드리 박고 말았다. 박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앞에 서 있던 받친 차는 수입된 고급차였다.

그런데 걸으로 보기엔 받친차는 멀쩡하고 받은차는 그야말로 왕창 부서졌다. 앞에 차는 수입된 고급 VOLVO 라는 차였는데 뵈 범퍼가 조금 스킨자국이 나고 뵈에 받은 차는 차 앞 범퍼는 물론이고 본네투까지 열렸다. 결과적으로 받친차는 멀쩡했지만 백이 십만원을 물어주고 받은 자기차는 칠십오만원을 들여 고쳤다.

두 부부는 차를 고쳐서 팔고 우리 형편에는 차를 갖는 것이 좀 이른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차를 팔아 버리고 다시 버스나 택시를 타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1000억달러가 넘는 무역국이 되었고 오히려 근년에는 무역흑자로 고민을 해야 될 판이고 거기에는 농산물수입 압력이 그 어느해 보다도 심해졌다. 자동차, 전자제품, 중화학제품을 많이 팔다보니 반대로 우리가 사줘야 할 상품은 농산물인 것이다. 꼭 국제적으로 비교우위라 해서 농산물을 수입해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해를 구하는 정부당국자들, 이해치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절차나 과정이 불합리하고 그 대응책이 미비하다는 것은 지난해 11월 17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많은 요구사항과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농민들도 어느정도의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이해도 하고 인정도 하지만 지나치면 곤란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인 것이다.

그러나 양담배수입으로 인해 잎담배 수매가 좋을 것을 예상하여 고추를 심으라고 해서 때아닌 고추파동을 일으키게 하는 졸속행정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일례로 그런일은 없겠지만 쇠고기를 수입할 것을 예상하여 소를 많이 키우지 말고 다른 가축을 키우라는 시책이 나오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지나치다고만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당국에서의 시책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나오기전에 축산인 자신들이 자구책을 강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절실하다 하겠다. 아무리 비교우위론으로 따져서 농축산물이 국제시세에 불리하다 하더라도 어느나라나 식량은 안보적 차원에서 보호 육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더욱 더 축산인은 주어진 사명감으로 적극 농산물 수입에 긍정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어렵게 장만한 “국산차”가 좋고 튼튼한 외제차에 한번 받쳐서 자가운전을 포기하듯이 농축산물 특히 쇠고기가 수입되었다고 또 앞으로 기타 축산물이 수입된다고 우리 축산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겨울에 있어서 각국 특히 일본에서의 소비를 보면 우리나라 육계의 시장은 밝다

고 하겠다.

별표에서 나타난것 같이 일본에서의 육계사료의 생산구성비를 보면 우리나라의 거의 2배에 이르고 있다. 국민 1인당 가금육 소비량을 보면 일본이 14kg(연간)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3.3kg으로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돈육은 일본이 16kg, 한국이 8.5kg으로 2배에 지나지 않는다. 이 통계로 볼 때 쇠고기, 돼지고기는 일본에서도 냉동상태로 상당량이 수입되지만 계육은 냉장으로 보관유통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가 수입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일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 1988년 1~5월

(단위 : 1,000톤, %)

축종별	한 국		일 본	
	(수량)	(구성비)	(수량)	(구성비)
양 계	1,270	32.1	4,889	48.8
산 란	913	23.1	3,078	30.7
육 계	357	9.0	1,811	18.1
양 돈	1,342	33.9	2,771	27.6
낙 농	659	16.7	1,113	11.1
비 육	650	16.5	1,222	12.2
기 타	33	0.8	35	0.3
계	3,954	100.0	10,030	100.0

이것은 바로 우리 양계업계 특히 육계업계에서도 닭고기의 시장이 지금 수준에서 2배 이상으로 신장될 잠재력을 갖고 있어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축산물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생산비의 절감과 유통과정의 불합리한 점만 시정된다면 우리 양계업계는 더 발전할 소지가 많다고 본다. 부분육·닭고기 가공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축산업중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 육계산업이다. 육계업 종사자의 부단한 노력이 결집되어야겠다. 좌절할 필요도 없고 미리부터 포기할 필요는 더 더욱 없는 것이다. **양기**